

대구광역시

필드의 검투사 '우승 전쟁' 질주·추격... 그리고 환호

전국 최대 규모 대회 승화
학생부 우승 장학금 지급
오늘은 소리 내 웃어보자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화신 크로커스 찾아왔다.
환희에 찬 청춘의 기쁨이다.
성공신화를 쏘아 올리는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 배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가 26일 경주 신라 컨트리클럽에서 화려하게 막 오른다.
2월 끝자락에 열리는 대회지만 그리움의 낯이 돼 꽃으로 피어난 크로커스와 꽃의 여신 플로라가 참가선수들을 반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골프축제다. 대회구호는 꿈나무 육성이다.
대구광역시배가 골프대회를 연지 10년 세월이 흘렀다.

대회 참가자들과 그린 위에서 함께한 청춘이다. 때문에 대구광역시배는 함께한 10년 함께할 10년을 바라본다.

무엇보다 대구광역시배는 한국 골프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골프는 주니어와 아마추어 골퍼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 대회

대회는 총 3억여 원(참가자 기념품, 시상품, 연예인 축하공연 등 포함) 상당의 규모로 학생·일반부로 나눠 열린다.

경기는 학생부 스트로크 플레이, 일반부 신페리오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단 일반부 남·여 챔피언은 스트로크(최저타) 플레이 방식이다.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풍성한 시상품이 수여된다.

전국 아마추어 골퍼대회 결전의 날
오늘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배

학생부 초·중·고(남·여 통합우승) 각 50만 원, 준우승(남·여 통합우승) 각 30만 원, 3위(남·여 통합우승) 각 20만 원의 장학금과 경북교육감상을 준다.

일반부 남·여 메달리스트에게는 5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과 ATPGA(아시아투어 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을 수여한다.

신페리오 일반부 남·여 우승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존 바이런 풀세트를 선사한다.

남·여 준우승은 트로피 및 마루망 아이언 세트, 남·여 3위 트로피 및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를 준다.

신페리오 우승 존 바이런 풀세트

최초 출신원(화랑·천마 각 지정코스)을 한 선수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장타자(남·여)는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니어리스트(남·여)를 한 선수에게는 존 바이런 퍼터를

지급한다.
최다 버디, 최다 파, 최다 보기, 최다 타수(노력 상)를 한 선수에게도 상품을 지급한다.

행운상도 푸집하다.
대회 최고의 볼거리는 연예인 공연이다.
2부 행사는 더케이호텔 주 대연회장(2층 거문고실)에서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사회는 김용일 삼성 라이온즈 장외 아나운서가 맡는다.

이날 빠이 빠이아와 최고 친구를 히트시킨 가수 소명, 탤런트 이영범·최준용, 가수 백봉기·신바·골드가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

대회를 여는 경주 신라 컨트리클럽은 명문 골프장이다.

천마 코스(7135야드)는 광활한 남성적인 코스로 페어웨이가 넓고 평탄하다. 화랑 코스는 높고 낮음이 적당히 있고, 아가자기해 샷하기에 좋은 코스이다.

김성용 기자



전국 최대 달집태우기... 액운 막고 복 기원
정월대보름날 24일 청도군이 전국 최대규모의 달집 태우기행사를 가졌다. 이날 청도천 둔치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에 전국에서 몰려온 4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관련 기사 2, 3면>



세계 최고 신비의 성
물풍수들이
오명관광여행사
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최기문 영천시장은 26 오후 3시 스타컨벤션에서 열리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영천시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26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월 모범선형 군민 표창수여식'에 참석한다.

'컷오프' 생존 대구 현역 의원들 표심 공략...

국민의힘 공관위
26, 27일 2차 경선
대구 중·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갑
달서구병 등 5곳...

'컷오프'에서 살아남은 대구 현역 의원들이 총선모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텃밭 TK(대구·경북)지역 공천을 70%가량 진행했다.
2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

면 지난 22일까지 TK 25개 지역구에서 단수 추천 4곳, 경선 13곳 등 17곳의 1차 공천했다.

대구에는 12개 지역구 가운데 중·남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갑, 수성구을, 달서구을, 달서구병, 달서군 등 9곳에서 현역들이 생존했다.

이들은 타 예비후보들과 2차 공천 경쟁 라운드에 들어갔다.

동구갑과 북구갑, 달서구갑 등 3곳은 심사가 보류됐다.

경선 대상자에 포함된 현역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선거 사무소를 개방

하는 등 '금배지 사수'를 위해 위명업을 하며 표심 공략에 점차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임병헌 의원(70·중·남구)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수송료 적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노인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임 의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유지하는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대식 의원(64·동구을)은 정책보좌관 등과 함께 본격적인 세(勢) 결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의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라며 "충분한 경험과 효율적으로 일해본 검증된 일꾼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주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승수 의원(58·북구을)은 25일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주민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표심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6, 27일 2차 경선을 한다.

조미경 기자

경주 원전 주민들 국회서 성난 투쟁 활화산

성난 경주 원전 주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투쟁을 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때문이다.
경주를 비롯한 원전 지역주민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23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2월 중처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1대 국회 회기 종료 앞두고 고준위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마지막 해결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원전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40년 이상 고준위 방폐물을 발전소 내에 두고 있는 지역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판 쓸자
2월 26일(월)
경주 신라 컨트리클럽
2024 제10회 대구광역시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감감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배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 구독문의
053-253-0000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훨훨 타는 달집에 '액운도 훨훨'

대구·경북 곳곳 달집태우기 행사
청도, 전국최대 규모 달집태우기
영천시, 달집태우며 군부대 유치

색이 있는 오곡밥을 먹고 단단한 부럼을 켜다.
한해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집을 태운다.
달집태우기는 짚이나 나뭇가지를 쌓아 만든 달집을 불로 태운다.
모든 부정과 근심을 함께 태워 없애고 한 해 소원을 정성을 다해 비는 대표적인 세시풍속이다.
정월대보름인 24일 달집태우기 행사가 대구 경북 곳곳에서 열렸다.
훨훨 타는 달집에 '액운도 훨훨' 날려보냈다.
음력으로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커다랗고 둥근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로 상원(上元)이라고도 불린다.
예부터 정월대보름날엔 농민은 한 해 풍작을, 어민은 풍어를 기원, 마을을 지켜주는 동신에게 동제를 지내왔다.
성공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운수를 점쳤다.



대구 달집태우기

'2024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가 24일 금호강 산책대교 둔치인 산격야영장에서 열렸다. 북구문화원이 주최, 북구청이 후원했다.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축제는 축하마당, 체험마당, 달빛마당, 먹거리마당 총 4개 마당으로 구성, 달집태우기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풍물단 길놀이로 시작으로 축제의 흥을 돋우고 무형문화재인 외출타기와 LED 대북 공연에 이어 기원제와 달집태우기, 라인로켓,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달집태우기는 로켓점화를 음해도 적용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금까지 15만 명이 찾아주시는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라며 "정월대보름 축제가 미래 세대에 계승되는 자랑스러운 고유문화로 지속되기 위해 안전과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100년 후에도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했다.
달서구는 월공수변공원에서, 동구는 안심교 하부 금호강 둔치에서, 달성군은 달성군민

동장에서 행사를 가졌다.
군유군은 월리봉 일대에서 태백산, 백두산, 팔공산 등 전국 8대 명산에 제사를 올리는 친신제를 지냈다.

청도 최대 규모 달집 태우

청도전 둔지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 행사가 둔지에서 몰려온 4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행사장에는 전년도에 이어 높이 20미터, 폭 13미터의 달집이 전국 최대규모에 걸맞은 웅장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올해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읍·면 풍물경연대회가 함께 열렸다.
월출 시간에 맞추어 달집에 불씨가 점화되자 거대한 불꽃과 함께 관람객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저마다 한 해의 풍요와 건강, 개인의 소망을 기원했다.
경북도 무형문화유산 제4호인 청도차산농악의 흥겨운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되자 풍물단들과 관람객, 주민들은 달집 주위를 돌며 신나는 화합 한마당이 이어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행사가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성료되어 매우 기쁘다. 올해는 민속예술 농악이 8년의 기다림 끝에 풍물경연대회를 통해 그 명맥을 이어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예술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청도군이 되겠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드는 갑진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천 달집 태우며 군부대 유치

영천시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와 한 해 시민들의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시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영천시청년연합회 주관으로 영동교 아래 강변공원에서 열렸다.
영천 고유의 민속놀이인 영천곳나무싸움놀이 재현과 율놀이, 제기차기, 떡치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놀이마당으로 구성됐다.
문화공연, 영천 발전 기원제, 달집태우기,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다.
시는 최근 대구 군부대 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작전성 측면의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등 유치 강점을 내세워 전방위적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주 전역서 달집 태우

'2024 정월대보름 축제'가 경주시 전역에서 풍성하게 열렸다.

경주시와 양동마을을 비롯, 각 읍면동에서는 올 한 해 액운을 물리치고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했다.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서 같이 화합하고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을 이어 이번 축제는 양동마을 민속놀이 행사, 제21회 정월대보름 축제, 제17회 시민 한마음 문화축제와 함께 열렸다.

'제21회 정월대보름 축제'는 경주문화축제 위원회(위원장 공성규) 주관으로 경주 서천둔치 일원에서 진행되며, 달집 태우기, 민속놀이 체험, APEC 경주유치 및 시민안녕 기원제를 올렸다.

'제17회 시민 한마음 문화축제'는 안백회(회장 이정숙) 주관으로 안강읍 칠평천 둔지에서 달집 태우기, 민속놀이 체험 공연, APEC 경주유치 및 읍민 안전기원제를 올렸다.

경주시 읍면동에서는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가 9곳에서 치러졌다.
감포읍은 대본3리 마을 주최로 오후 4시 대본3리 마을 입구(이전대 아래 해변)에서, 건천읍은 건천읍 체육회 주최로 건천 제1교 아래에서, 외동읍은 입실 1리 청년회 주최로 입실천 둔지에서, 양남면은 수렴 2리 마을회 주최로 관성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예천 달집태우기

예천읍 한천체육공원에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사)민예총예천군지부, 예천군농민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대보름 민속놀이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민들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행사는 다리밟기, 고유제,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며,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는 소원지를 나눠줬다.

부럼깨기와 같은 전통행사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갑진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로 올해 액땀을 해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영주 정월대보름 행사

영주시에서 한 해의 무사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열렸다.
순흥초군청 민속 문화제(순흥면 선비촌), 무섬마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문수면 수도리), 소백산땀고을 세시풍속 한마당(풍기읍 남원천)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순흥초군청민속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선비촌 광장에서 100여년 전통을 이어온 순흥지역 전통 민속행사인 '순흥초군청 민속문화제'도 열렸다.

마을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양대 성황제를 시작으로 순흥부사 행차 재현, 성하·성북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와 마을대항 율놀이 등 민속놀이도 마련됐다.

무섬마을보존회가 무섬마을 백사장에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렸다.

소지 달기, 기원문 낭독, 쥐불놀이, 고구마 구워먹기, 연날리기 등 부대 민속놀이와 함께 달이 뜨는 시각에 맞춰 쥐고 솔가지 등으로 만든 달집을 태우면서 모든 이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다양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함께 즐기며 전통문화를 통해 다시 한 번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제

구미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한 해의 액운을 떨쳐버리고 시민 안녕 기원과 화합을 도모하는 '2024 갑진년 정월대보름 민속문화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1시 금오산 잔디광장 금오제단에서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는 금오대제를 봉행하고, 17시 30분 낙동강 체육공원 1주차장 앞 둔지에서 달집을 태웠다.

금오대제는 초헌관 김창호 시장, 아헌관 안주찬 시의회 의장, 종헌관 라태훈 구미문화원장이 맡았다.

참석한 시민들에게 살풀이춤 등 민속공연 볼거리를 제공, 대보름 음식 나누기와 율놀이 등 세시풍속을 직접 체험할 기회도 제공했다.

8년 만에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는 정월대보름날 밤 달이 떠오를 때 달집에 불을 질러 노는 세시풍속으로, 시민들이 직접 소원문을 적어 달집에 게첨한 후 점화를 통해 한 해의 무탈과 만사형통을 기원했다.

지방총합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8(일간) 누리집www.dgy.co.kr 전자우편dgynews@dau.com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예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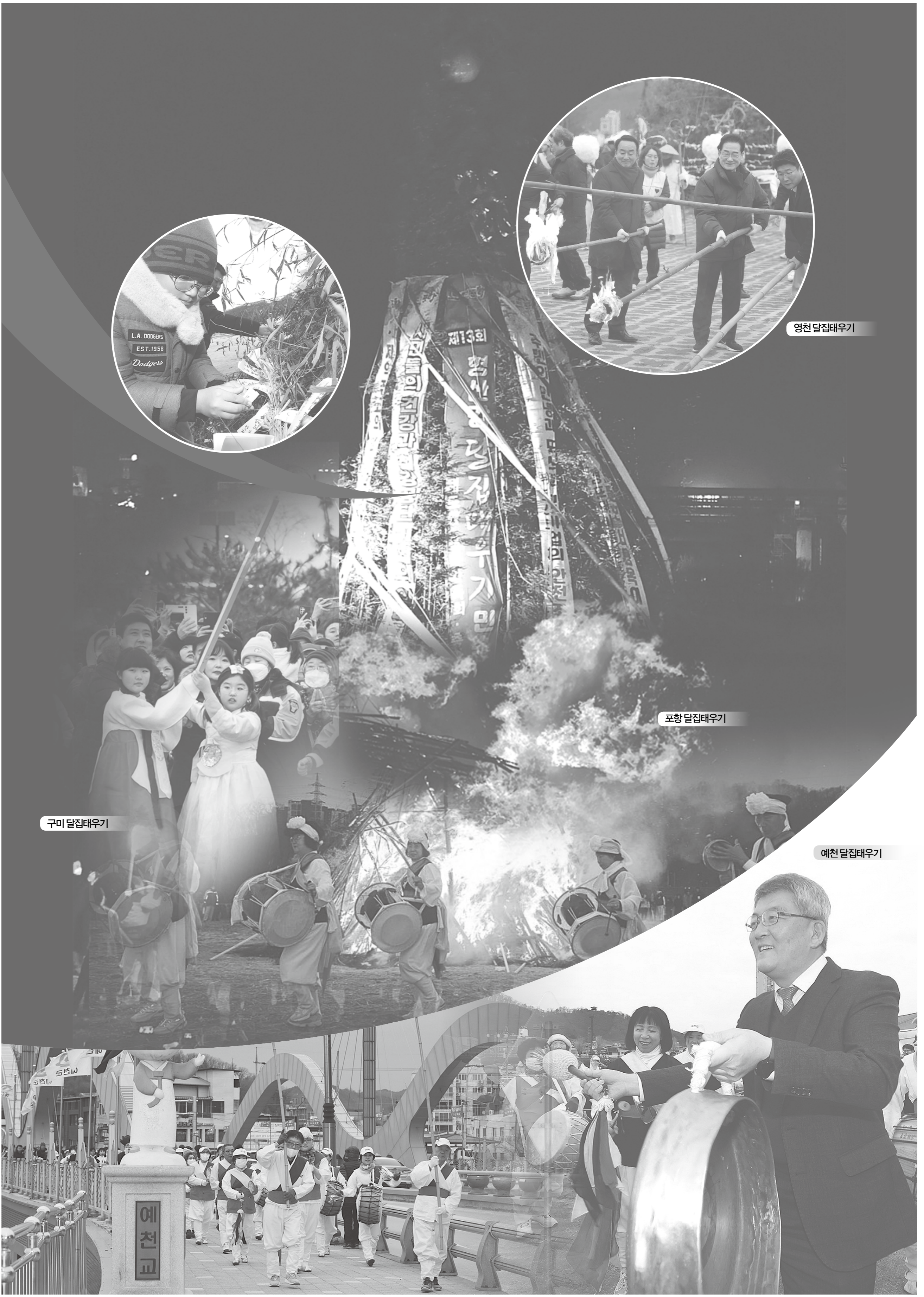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영천 달집태우기

구미 달집태우기

포항 달집태우기

예천 달집태우기

예천교

오도창, 저출산 고령화 현상 지자체 살생부...더이상 안돼

인구절벽 46가지 인구정책 눈길
1인 당 최대 1억4405만 지원한다
결혼장려금 500만원 등 정책마련

인구절벽이 지방정부 살림을 쪼그라들게 한다. 대한민국 인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실제 2021년 조금씩 줄어들던 인구가 작년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첫 인구 감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가입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합계출산율)는 0.78명이다. 2020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세계 출산율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소멸, 나아가 '한국소멸' 우려가 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내리막 길 가속도 붙은 인구감소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22년 경북 도내 합계출산율은 0.93명이다. 2020년 1.0명을 기록한 뒤 연속해서 출산율 1.0명을 밑돌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시군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 경북도 인구정책 워크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인구는 전년 대비 4만 6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1일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2만2000명 감소했다. 고령화로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많아짐에 따라 자연감소 인구는 1만5000명에 달한다.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북 합계출산율은 2019년 1.09명에서 2020년 1.00명, 2021년 0.97명, 2022년 0.93명, 지난해 0.81명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경북도내 지자체의 살생부보다 다가오고 있다.

▣영양군, 인구절벽 극복 대응
오도창 영양군수의 지방소멸 대응이 눈물겹다. 오 군수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 위기에 직면하자 46가지 인구정책을 내놓았다. 인구절벽 시대 벗어나야 영양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탓이다. 오 군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경북도내 인구가 매년 영양군 인구만큼 사라지고 있다. 영양군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단계별 시스템 전략을 모색한다. 경북 북부에 위치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구절벽을 마주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에 오는 분들의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살고싶은 영양, 찾고싶은 영양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 현재 대두되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행정력을 총동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영양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지 오래다. 2023년 사망자 수가 281명인데 출생자 수는 29명이다. 출생인구가 사망인구의 10%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생애주기(예비 부모·영유아·



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에 따라 인구정책사업(46개)을 마련했다.

▣인당 최대 1억 4405만 원 지원
1인 당 최대 1억 440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혼인율 증가를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 결혼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산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엽산·철분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축하용품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공공육아나눔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지원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포함, 다양한 영유아·아동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청소년들에게는 △교육구입비 지원 △교육급여 △위생용품지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청년들에게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향토생활관 및 영양학사 △마음건강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창업지원 △근로자 지원 사업 등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이용, 경제·심리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는다.

▣귀농 인 최대 1400만 원
군은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독감 무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에 나선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군은 전입인구 및 귀농인구 증가를 위해 1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1인 최대 1400만 원의 지원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입인구를 위해 △전입축하금 △주택임차료 지원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군민안전보험 △각종 진료비 감면 등을 지원한다. 귀농인에게 △농사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농사와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있다. 향후에는 확령기 인구 전출 방지를 위해 영양사랑 학생 지원(영양 사랑 상품권 지급), 결혼이민과 같은 국적취득자를 위한 영양사랑 국적 취득자 지원(영양사랑 상품권 지급)을 포함, 인구증가에 총매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
영양군이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전략'에 머리 맞췄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투자사업 발굴에 나섰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로 부군수 주재로 지난 22일 부군수실에서 진행된 전략회의에는 중점 발굴사업 담당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달한 '2025 투자계획 평가계획'을 비롯해 신설·변경된 평가항목(지표) 등을 점검했다. 가점사항에서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이 상향된 계속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은 물론 영양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될 신규 투자사업 발굴 및 보완·수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고,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 2025년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 등급별 기금 배분금액은 S등급(5%) 144억 원, A등급(15%) 112억 원, B등급(30%) 80억 원, C등급(50%) 64억 원이다. 권운동 기자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성황속 막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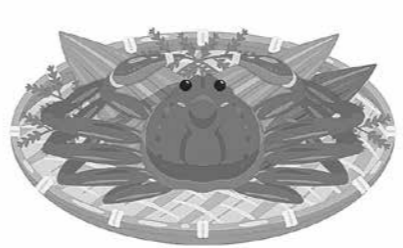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군과 주민 함께한 화 축제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가 막 내렸다. 지난 22~25일까지 4일간 후포항 일대에서 열린 대게 축제에 구름관중이 몰렸다.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울진의 명품 대게와 붉은대게를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울진군의 대표 겨울 축제로 해마다 많은 사람의 참여

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대게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만들었다. 게임에 승리하면 대게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대게 도적과의 전쟁', 대게 빨리 먹기 대회인 '빨리 내 입속으로 들어 오게',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대게 관련 상식 퀴즈 '대게 찌면 몇 그램이게?' 등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색다르게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계절라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게 할인 이벤트', 시세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게 경매 체험', 대게

를 비롯한 울진의 수산물 을 직접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바다 보물 잡기' 등을 통해 대게를 값싸게 얻을 기회도 마련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군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화합의 축제다 재밌게, 즐겁게,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장천역 일대 영양도 오솔길

물 영양호 일대 영양호수

빛 영양호수 일대 영양호수

일 영양호수 일대 영양호수

맛 영양호수 일대 영양호수

쉼 영양호수 일대 영양호수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뵈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생기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률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 영양의 자연, 일월신, 선바위의 남이모, 삼의계곡, 수려계곡, 분신계곡, 천벽공원, 죽백수원, 외씨내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감춘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포불이전원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신사생태공원, 영양공력발전단지, 용감신자연유원지, 안강산촌생물박물관, 분사수소이생태휴식공간



불국장학재단, 제31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불국장학재단은 지난 22일 불국사농협 회의실에서 31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김원태 이사장을 비롯한 박승

직 경상북도의원, 이동형 경주시의원, 한순희 경주시의원과 장학생,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불국동 지역의 중고등학생 10명

에게 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전달됐다. 불국장학재단은 천마그룹 박재우 회장이 서 자라나는 지역 후배들의 학업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해 1993년에 설립됐으며, 올해까지 31회에 걸쳐 지역 장학생들에게 2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주낙영, 인구감소 대응 최우선 과제... 행복한 경주

경주시, '인구감소' 적극 대응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추진
자녀양육부터 청년자립까지
영유아 양육 초·중·고·대 지원

로 생애주기를 분류한다. 각 단계별 혜택을 제공해 인구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4 경주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 모두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보육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분유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으로 기저귀는 월 9만원, 분유는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 소포털 및 대형마트 등 카드사별로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사업'과 '신생아 냉정 조기진단 지원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입학 축하금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경주에 주민등록지를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이며,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입학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부모나 학생 중 한 명이 경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타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그 자녀 중 성적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중·고·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중학생 50만원 씩이 지급된다.

경주시가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한다. 자녀양육부터 청년자립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내신다. 시는 영유아 양육, 초·중·고·대학교 지원 등



지난 22일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분기 정기회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홍보를 했다.

APEC 정상회의의 경주에 꼭 깃발 꽂는다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APEC 정상회의 유치 계몽운동

화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를 위한 홍보 교육을 했다.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인근 상가 등을 방문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과 함께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및 손님맞이 계몽운동도 곁들였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 발굴하고, 시민의식 선진화와 따뜻하고 친절하고 손님맞이 홍보로 국내외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안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해 지역돌봄체계가 강화 및 다 함께 행복한 글로벌 경주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장용득 민간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안강읍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더불어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정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밭 고고 나서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경주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경주시, 품격 높은 공연예술 선보여



시립극단이 지난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경주시립예술단이 품격 높고 다양한 공연·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감증을 해준다. 시는 올 한해 시립예술단을 통해 지역 곳곳을 누비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립예술단은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시립신라고취대교 구성돼 있다. 시립극단은 오는 4월과 11월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7월에는 전국 10개 도시 극단을 초청해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을 잇따라 선보인다. 시립합창단은 브루크너, 차이콥스키 등 유명 작곡가들의 곡들을 포함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팝과 영화 음악을 노래해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킨다. 경주예술의전당에서는 6·12월 정기연주회, 11월에는 '나인심포니' 특별공연을 준비했다. 연 말 제야의 타종 행사에 시민과 함께하는 500인 대합창도 마련했다. 신라고취대는 경주의 풍류라는 주제로 3월과 6월 대동원, 침상대 일원에서 상설공연과 특별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시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경로잔치나 체육대회가 열리는 행사장에서 신라고취대 공연을 추한다. 지난해 시립극단은 14회 공연(관람객 3천여명), 시립합창단은 33회 공연(관람객 1만3천여명), 신라고취대는 34회 공연(관람객 2만여명) 등으로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빛내는 시립예술단이 올해도 더욱더 품격 높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4 성진지구 도새재생 전문가 및 FGI 현안 포럼

성진1지구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 추진 비전... 과제 도출

지난 1회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지역상권 전문가이자 앱이전락연구소 김용환대표가 '지역상권법 제정에 따른 지역특화 상권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진락 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좌장으로 권중욱 영남대 교수, 상권육성전문가 하명정 대표, 민대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을 지정토론자로 성진지구 지역특화도시재생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에 함께 응원했다. 시는 전문가 포럼 이후 오는 4월 중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쳐 2024년 성진지구 공모를 한다. 이동수 철도도시재생과장은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실현 가능한 특화재생과제를 도출해 성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성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 경주시 성진1지구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 포럼이 열리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2일 성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24년 제1회 도시재생대과 전문가 및 FGI 현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올해 성진1지구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컨설팅과 과제를 도출할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노년기 행복 프로그램 '극장 소풍가요' 성료

경주가족센터, 90명 참석
지역 영화관서 영화 관람



지난 22일 지역의 한 영화관에서 노년기 프로그램 '극장으로 소풍 가요'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가족센터는 시민이 노년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동적인 여가활동과 문화체험은 물론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지원, 부부 및 가족사진 찍기 등 이웃과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김은라 경주시가족센터장은 "스스로 긍정적인 노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년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동행한 한 70대 참가자는 "이런 문화행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시가족센터는 시민이 노년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동적인 여가활동과 문화체험은 물론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지원, 부부 및 가족사진 찍기 등 이웃과 가족관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김은라 경주시가족센터장은 "스스로 긍정적인 노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노년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4건 적발

20건 6700만원 과태료 부과
4건 세무서 통보 경찰 고발

심사례 350건을 정밀조사, 위반사항 24건을 적발했다. 조사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실거래가 모니터링 △자진신고 및 관련인 고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타 자체조사 등으로 고강도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압·다운계약신고 5건(9명), 계약일 위반 1건(2명), 지연신고 14건(23명)은 6700만원 과태료를 부과, 중의심 4건(8명)은 세무서 통보 및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주시지회와 대구경북 지방법무사회 경주지부에 거래 위반행위 근절

에 협조요청을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검찰, 녹장수사·눈치보기 수사 수궁 어려워”

홍준표 대구시장은 “때를 놓치는 녹장 수사는 아무리 잘해도 수궁하기 어렵고, 눈치 보기 수사는 더더욱 수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

즘 검찰은 눈치로 수사하는지 기관 고발을 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경찰과 시민단체 등을 고

발한 사례를 열거하며 “사흘만 하면 자료 검토가 끝날 텐데 보완 자료 제출을 한지 6개월이 지나도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 인사 이동이 있다고 하니 새로 부임한 사람들은 부디 미루기, 책임 떠넘기기 수사는 하지 말고 신속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울진군, 대설 고립가구 피해 최소화 총력대응

주민안전 최우선 행안부-경북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총동원

울진군은 20일 이후 경북북동산지의 연이은 폭설로 금강송면(왕피1,2리, 쌍전1,2리, 소광1,2리) 일대 정전으로 고립된 221가구 331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 금강송면 일대 제설 복구 및 고립지역의 구조를 위해 소방, 경찰, 한전, KT, 공무원의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군은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안부, 경북도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제설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2일 정전으로 인해 고립된 221가구 331명은 인근 마을회관에 일부 대피했다.

일부 자가 대피를 한 상황으로 군에서는 급식 제공, 가스버너, 핫팩, 생수 등 비상 구호물자를

공급,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대계축제 기간 중에도 고립 가구 주민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부터 소방서, 공무원과 함께 정전 지역에 들어가 군민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소방서 헬기를 투입, 안전 여부 확인 및 고립지역 주민을 구조했다.

노약자 및 대피를 원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마을회관 및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군은 제설작업과 전기복구를 위해 총력 지원, 도로개통 및 전기 복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곽금호 쌍전2리 이장은 “3일 동안 지속된 폭설로 많은 불편함이 발생, 울진군의 물품지원 및 안전여부 확인, 제설작업 등으로 불편함보다 더 값진 도움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군위군,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진

대구시 군위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차(2022-2023)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7000만 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박재성 기자

김주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총매진

의성군, 사회적기업 대상 인증 컨설팅 지원에 총력

의성군은 지난 20일 의성군 로컬푸드직매장 교육실(2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의 3년간의 예비 단계 지정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들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 기업으로는 카페업종 향촌당주식회사(대표 전미향), 복숭아 가공업 무릉도원농조합법인(대표 박현주), 식품가공업 주식회사 의성농보(대표 배성룡) 등 3개 기업이다.

안동사회적경제허브센터(센터장 김원규)의 전문 컨설턴트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매출액 등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했다.

향후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난 5일부터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인증 심사는 연간 3회 개최한다.

김주수 군수는 “의성군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이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성군의 지역 사회공헌과 사회적기치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기자

24시간 대기하던 응급환자 2차병원서 ‘구사일생’

60대 환자, 대학병원서 의사 없어 기다리다 2차병원 전원 끝에 수술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의료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애타게 태우던 60대 응급환자가 2차 의료기관의 의료진 덕분에 응급수술을 무사히 마쳤다.

24일 대구 의료계 등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 21일 오후 급성 복통(소장 괴사)으로 대구남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당시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해당 병원에선 A씨를 수술할 외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24시간 동안 병원에서 계속 대기하자, 해당 병원 의료진은 자칫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 달서구의 2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다.

전원을 요청받은 달서구의 병원도 수련병원의 사 등의 집단행동으로 평소보다 응급환자가 많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A씨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보고 전원 요청에 응했다.

구급차를 타고 22일 오후 4시쯤 2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A씨는 즉시 장절제술을 받아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한 2차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다

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회복 중이다”고 전했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6개 수련병원은 현재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곳 외에도 달서구 구병원과 보훈병원, 삼일병원 등이 24시간 응급환자를 받고 있다. 중구는 광병원, 대구동산병원, 동구는 강남병원, 바로분병원, 남구는 드림종합병원, 구모남병원, 북구는 칠곡가톨릭병원, 서구는 대구의료원, 수성구는 천주성삼병원, 달성군은 행복한병원이 각각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황태웅 기자

‘DGB삼일절예적금’ 한정 판매...예금 연 3.95%·적금 연 4.55%

고객 만족 제고 서비스 진행



DGB대구은행은 삼일절을 기념해 i뱅크(앱)에서 태극기 터치 계약 시 우대이자율을 지급하는 DGB삼일절예적금을 한정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에서 착안, 온라인 어플에서 터치로 국기를 게양해 삼일절의 의미를 깨닫고 이를 우대 금리로 되돌려 주는 콘셉트로 기획했다.

오는 3월31일까지 예금 3000억원, 적금 80억 원 한도로 판매되며 개인고객(상품별 1인 1계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DGB삼일절예금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1년제 정기예금으로 기본이자율 연3.60%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0.3%p(최고적용이자율 연3.90%)까지 받을 수 있다.

DGB삼일절적금은 월 적립금 5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1년제 정기적금으로 기본이자율 연 3.50%에 우대이자율 최고 연1.0%p까지(최고적용이자율 연4.50%)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율은 상품 가입 후 10일 이내 i뱅크(앱)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거나 마케팅 활용 수단 전체동의, 예·적금 동시 가입 후 예금 및 적금(12회불입)만기일까지 보유 시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대 우대금리 예금 연0.3%p, 적금 연1.0%p를 받을 수 있다.

i뱅크 앱으로 DGB삼일절예금, 적금 가입 시 비대면우대이자율 연0.05%p가 추가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DGB대구은행 홈페이지 및 i뱅크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미경 기자

Advertisement for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of water and a steering wheel. The text says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NO!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vacate the driver's seat.) and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한한 슬로건입니다." (This slogan is limited by all citizens.)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반드시 천년고도 경주에!!

꿈나무야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50만원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참가규모 88팀(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월 20일 (입금자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행사장소** : 경주더케어 호텔 2층 거문고실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 김영숙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대회 참가 연예인>



사회 김용일



탤런트 이영범



가수 소명



탤런트 최용준



가수 백봉기



가수 신비



가수 골드

대구
광역시
일보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일반부

-신페리오

- 남자우승 준비이런 남성 풀세트
- 여자우승 준비이런 여성 풀세트
- 남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시상내역

- 여자준우승 마루망 아이언세트
- 남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3위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여자 롱기스트 타이틀917 남성 드라이버
- 남자 니어 준비이런퍼터
- 여자 니어 준비이런퍼터